

# 광주시교육청, 상호작용 강화·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연수

### 오는 29일까지 10일동안 내실화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학생참여·배움 있는 원격수업 통한 학습격차감소 기대

광주시교육청이 18~29일 10일 동안 교원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줄이고, 원격수업에서도 학생의 참여와 배움을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공통 55과정과 교과 27과정 등 총 82과정으로 구성됐고, 각 과정은 온라인 화상도구(ZOOM, 구글미트, 온더라이브, 두레아 등)를 활용해 2시간 동안 실시

간 쌍방향으로 운영된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정 당 최대 1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겨울방학을 활용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노하우를 익히길 희망하는 교원들(중학교 74교 432명, 고등학교 40교 333명)이 연수를 신청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교원을 위해 공통과정을 마련했다. 공통과정은 쌍방향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화상수업 기본 설계 및 에티켓 등 친숙한 화상수업 환경을 만들어 보는 실습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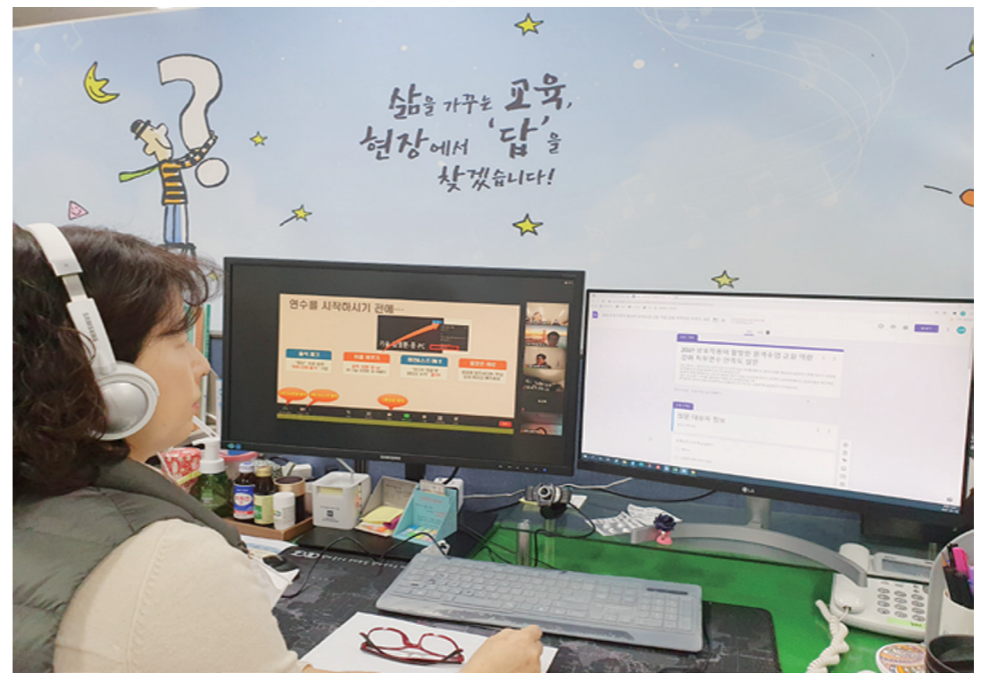
교과과정은 교과별 원격수업의 수업·평

가 사례를 나누기를 원하는 교원을 위해 설계됐다. 학생 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사례를 공유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 활용법을 실습한다.

원격수업 집중 연수 운영 강사는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공개 모집됐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 노하우를 가진 29명의 교원이 강사단으로 조직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교수-학습 모델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등교수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연계해 수업할 수 있는 교원의 수업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의 효과가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활발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이어질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광주동부·서부·광산Wee센터, '마음 똑!똑!' 운영

###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진행

광주동부·서부·광산Wee센터가 1월18일~2월5일 3주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겨울방학 심리검사 프로그램 '마음 똑!똑!'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음 똑!똑!'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코로나 블루 및 심리 준비 스트레스를 완화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마음 똑!똑!'에서는 성격이해, 정서, 학습진로, 양육 분야의 다양한 유형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녀와 학부모는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상담을 통해 서로의 성격 특성과 심리상태

를 이해하고, 코로나19 스트레스도 예방하며 의미 있는 심리하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Wee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의 참여는 온라인 검사가 가능한 심리검사의 경우만 가능하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겨울방학 기간에도 코로나 블루 예방 및 극복을 위한 학생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번 '마음 똑!똑!'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며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고흥 녹동중, 쌍충 문화재로 연결된 쌍충길 자전거로 달리다

### '고흥이 충절의 고장'임 이해·쌍충의 정신 배우기 위해 실시

고흥 녹동중학교(교장 김홍렬)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두발로 움직이는 행복팀'은 14일 고흥군에 소재한 쌍충일렬각, 송씨쌍충정려, 쌍충사를 연결하는 쌍충길(65km)을 자전거로 라이딩 탐방하였다.

전국에서 '쌍충'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는 총 6건으로 이 중 전남 고흥에 3건이 있다. 이에 '고흥이 충절의 고장'임을 이해하고 쌍충의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번 일정은 녹동에서 벌교까지 버스로 이동하였고, 고흥 만남의 광장을 거쳐 임진왜란 때 순절한 송대립과 그의 아들 송심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동강 쌍충 정려를 탐방하였다.

이어서 임진왜란 때 순절한 송제와 그의 부

인 능성 구씨, 병자호란 때 순절한 송덕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대서 송씨 쌍충 일렬각을 들렀다.

계속해서 50km를 달려 녹동에 있는 쌍충사에 들러 1587년 손죽도 해전에서 순국한 이대원 장군과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바다도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며 이순신 장군 휘하 전라좌수군의 옥포해전 출전, 한산도 대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부산포 해전에서 장렬하게 순국한 정운 장군을 기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고흥 사람들의 쌍충 정신을 배우고 임진왜란 당시의 고흥의 지리를 이해하며 충절의 고장 고흥 선조들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참여한 학생 모두가 고흥반도의 종단 구간(벌교, 고흥, 녹동)을 완주한 후 '우리



모두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강인한 체력과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었다.

특히 2학년 이형모 학생은 주어진 프로젝트를 끝까지 도전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고흥이 충절의 고장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녹동중, 두 발로 움직이는 행복팀은 흥양수군길 등 모두 7차례 도전하여 2020학년도에 총 619km를 라이딩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 전남교육청,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화상 상담 본격화

### 코로나19 시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진로진학 상담 지원

전남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서 도서 및 원거리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편리하게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화상 상담을 제공한다.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서비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전남진로진학지원포털(<https://jdream.jne.go.kr>)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진학지원센터로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본격적인 화상 상담 서비스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권역별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을 대상으로 화상상담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효율적인 상담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김정환기자

## 순천교육청, 겨울방학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강화

### 학습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대학생 멘토링 지원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덕)은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겨울방학 중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한다.

순천청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관내 초·중학교 42교와 1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지원과 사범대 대학생들로 구성된 1:1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겨울방학중 운영되는 학습코칭단은 학기 중과 연계하여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하여 정확한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도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한다. 이번 방학에는 8명의 코칭강사가 초·중학교 30명의 학생들을 밀착 지도하게 된다.

또한, 예비교사를 꿈꾸는 사범대 대학생들로 구성된 81명의 멘토와 초·중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1:1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대학생 멘토링은 8년째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비교사들에게는 봉사정신과 학생지도 경험을, 멘티들에게는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등 멘토와 멘티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